

유도영 You Do Young
바다가 준 나무



■ 전시 개요

전 시 명: 유도영 개인전: 바다가 준 나무
 참여작가: 유도영(입체, 설치)
 전시규모: 입체, 설치 작품 20여 점
 전시기간: 2018. 9. 1.(토) ~ 11. 11.(일) 총 72일
 전시장소: 가나아트파크 가나어린이미술관, 제4전시장
 (11520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17. T.031-877-0500. www.artpark.co.kr)

□ 문의(전시기획운영팀):

- * 전시기획: 박정원 팀장 psjw9116@artpark.co.kr
- * 전시홍보: 이세원 홍보코디네이터 swlee90@artpark.co.kr

□ 보도자료 다운로드: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artpark1020 비밀번호)gana '유도영개인전' 폴더 내

■ 전시 소개

가나아트파크는 올 9월과 10월 시즌테마를 '업사이클 아트(Upcycle Arts)'로 정하여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헬로, 업사이클!(Hello, Up-Cycle!)》 프로젝트를 연다. 이번 프로젝트는 업사이클 아트와 관련된 작가들의 ▶전시와 다양한 ▶만들기 체험 그리고 어린이 크리에이터를 뽑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헬로, 업사이클!》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전시 중, 유도영 작가의 개인전 《바다가 준 나무》를 소개한다.

■ 전시 서문

유도영 작가는 '바다가 준 나무'로 작품을 만든다. 작품의 재료가 되는 나무는 바닷가로 밀려 온 폐기물을 수집하는 행위인 비치코밍(beach combing)으로 얻은 것이다. 유도영 작가는 이렇게 바다를 떠다니다 해변에 불시착한 나무만을 주워 작품을 만드는데, 이를 두고 작가 자신이 '주운 나무'라고 하지 않고 '바다가 준 나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

실제 바다는 인간의 의식주(衣食住)뿐 만 아니라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다는 물로 되어 있어 열을 저장하고 내보내면서 날씨를 조절한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달의 인력은 바다의 물로 전달되어 밀물과 썰물로 발현된다. 이렇게 신비로운 바다는 나무 조각 하나도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바닷물을 빨아들인 나무는 그 어떤 나무들 보다 독특한 질감과 색으로 변화한다. 흙으로 빛은 도자 조각 같기도 하고 매끈한 돌멩이처럼 단단하기도 하다.

유도영 작가는 업사이클 아트(upcycle art) 작가이다. 사실 업사이클 아트 작가이기 이전에, 자신이 추구하는 동화 같은 감성과 어울리는 재료를 발견하는 특별한 시각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피카소(Pablo Piccas) 역시 1940년대 독일 점령 하에 있던 프랑스에서 버려진 자전거 안장고 손잡이를 작업실로 들고 와 직관적으로 작품 <황소머리>(1942)를 만들었다. 예술가들은 특정 기능을 배제하고 그저 어떤 대상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도영 작가는 오브제의 표정을 읽고 큰 그림에 필요한 나무 조각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는데 탁월하다.

이번 유도영 개인전 《바다가 준 나무》에서 작가는 비치코밍 나무로 제작한 조각과 조명을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20년 넘게 동화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 바 있다. 그래서 인물과 동물, 그리고 낮과 밤 등 캐릭터와 배경이 되는 소재가 작품마다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특히 <달빛사랑>, <부영이가족>은 기계부품인 볼트 머리와 동그란 쇠볼트가 나무재료와 대비되어 야생 부영이의 번뜩거리는 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도영 작가는 나무를 재단하거나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부영이가 고개를 가우뿔거리는 표정이나 새끼 부영이들과 웅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도 그림을 그리듯 조각한다.

유도영 작가가 '바다가 준 나무'에서 발견한 다양한 표정과 형상은 작가의 상상력과 생각들로 녹여낸다. 작품들은 누구나 보아도 좋을 보편적인 감성을 이끌어내고 작가가 마치 바다와 나무 사이의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작품을 보는 이들을 작가가 '바다가 준 나무' 조각들을 마주했을 때의 공간으로 이끈다. 마치 조각 하나를 모티브로 어떤 이야기나 큰 그림을 순간적으로 떠올릴 당시의 상황이 그려지듯 생동감이 넘친다.

이번 전시에서 유도영 작가의 다양한 상상력과 감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위해 서랍장을 직접 좌대로 만들 정도로, 작가만의 특별한 업사이클 아트를 선보인다. 제주도와 고향의 정취를 표현한 <바람이 부는 섬>, <고향의 문>, 명작을 해석한 <엄지공주>, <어린왕자와 여우>, 작가의 맑은 상상력을 목도할 수 있는 <머나먼 여정>, <영원한 사랑>, <내안의 그녀>, 자칫 우울할 수 있는 업사이클 아트를 재기발랄한 워트로 승화시킨 <표정일기>, <Y씨와 그의 개> 등의 작품이 그렇다.

어쩌면 바다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메시지는 한때 인간이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쉽게 버렸던 쓰레기들이다. 유도영 작가는 파도에 밀려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작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실마리 혹은 단서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래서 유도영 작가의 작품은 업사이클 아트를 넘어선다.

■ 작가노트

끊임없이 생산되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 속에서
일상의 모든 물건은 예술가의 오브제가 될 수 있다.
나는 폐품으로 강아지, 부엉이, 나비, 곤충 등
살아있는 생명체와 아련한 기억 속 풍경도 만든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시공간을 이야기 속에 담아
시(詩)적 추억과 여정을 그림언어로 말하려 한다.

(유도영)

■ 작가 작품



유도영, <부엉이 가족>, 나무, 혼합재료, 2018



유도영, <내안의 그녀>, 나무, 혼합재료, 2017



유도영, <영원한 사랑>, 나무, 혼합재료, 2017



유도영, <어린왕자와 여우>, 나무, 혼합재료, 2017



유도영, <바람부는 섬>, 나무, 혼합재료, 2017



유도영, <Y씨와 그의 개>, 나무, 혼합재료, 2018



좌) 유도영, <나그네>, 나무, 혼합재료, 2018



우) 유도영, <바람이 분다>, 나무, 혼합재료, 2018

■ 작가 약력

유도영 You Doyoung

<https://www.facebook.com/doyoung2014>

서울에서 작업, 거주

현재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작가
홍익대학교 공예학과 중퇴, 인덕대학교 일러스트레이션과 졸업

주요 전시

2016 창작공간 페스티벌 Sensible Reality, 서울시민청, 서울
The Shift 작가공모 선정전, 갤러리박영, 파주
2015 Re-Born, 신진작가 공모 수상 개인전, 갤러리 팔레드서울, 서울

수상

2018 제 2회 ART-236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플레이스 캠프 제주), 은상
2017 도시락공모전 미술터미널 작은미술관, 입체 부문 대상
그림으로 보는 한국문학 공모, 우수상

교육워크숍

2018.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전시/체험 워크샵, DDP, 서울
Upcycling-Art 업사이클링 아트 워크샵,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
2016 Upcycling Art 조명만들기 체험프로젝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광명
2015 Upcycling Re-Art 체험교육 프로젝트, 그림갤러리, 창원